

[ 사회 ]

# 법대생 54% “판사 태도 권위적”

### ■ 조선대생 80명 광주지법 재판부 모니터링

## 75%가 “법정 용어 어렵다”

광주지법 법정 모니터링에 참가한 법대생 중 절반 이상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태도가 권위적이며 사용하는 용어도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이 선임한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조선대 법대 재학생 80명을 그룹별로 나눠 34개 재판부를 상대로 실시한 법정 모니터링 결과 53.8%의 학생이 판사의 태도가 권위적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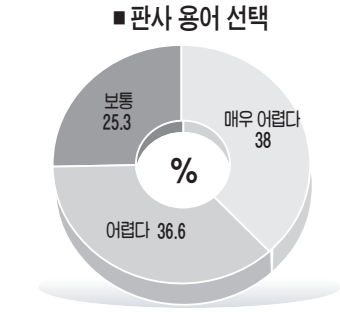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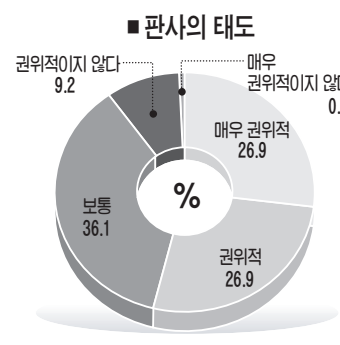
‘재판장이 위압적·권위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9%가 ‘매우 권위적’이라고 답했으며, ‘권위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6.9%를 차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36.1%였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는 38%가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36.6%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판사들의 ▲발음과 쉼표의 적절성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재판에 대한 관심도 등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에 비해 당사자 변론사건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34.7%가 ‘매우 그렇거나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21.3%에 그쳤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법대(法臺)가 방청석보다 높은 점 등 때문에 아직



도 판사가 권위적이라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재판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한 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중 유통 황사마스크 대부분 미세먼지 절반도 못막는다

### 먼지포집효율 32.4% 불과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 보호용 마스크는 대부분 먼지를 막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중의 황사 보호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의약외품) 41개에 대해 먼지포집효율과 공기의 누설율을 조사한 결과 적합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에 의뢰해 만든 어린이용 마스크 시제품(試製品) 1개, 산업용 방진 마스크 1개, 황사 마스크 34개, 일반 마스크 7개 등에 대해 1차로 먼지 포집효율을 검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산업용 방진 마

스크의 기준인 먼지포집효율 80%를 넘긴 것은 시제품과 산업용 마스크, 황사 마스크 2개뿐이었다.

시제품의 먼지포집효율은 98.8%, 산업용 마스크는 평균 32.4%(7.9~91.9% 분포), 일반 마스크는 61.9%(42.9~74.8% 분포)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어 4개 제품에 대해 공기 누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제품과 산업용 마스크만이 산업용 기준을 통과해 실질적인 ‘황사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1차 검사에선 마스크 제품의 필터링 효율, 2차에선 마스크 착용 시 공기 누설 정도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 따가운 햇살

맑은 날씨가 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1~28℃
전주	맑음	13~25℃
대구	맑음	14~25℃
부산	맑음	11~26℃
서울	맑음	9~29℃
인천	맑음	8~26℃
대전	맑음	8~27℃
충주	맑음	10~27℃
청주	맑음	8~29℃
경주	맑음	12~26℃
울릉도	맑음	9~27℃
독도	맑음	10~28℃
제주	차차 흐려짐	8~29℃
제주	차차 흐려짐	8~29℃
제주	차차 흐려짐	10~29℃

5월 8일 (음 3월 22일) 전국날씨

▲해돋이 05:35 ▲해질 19:23 ▲달출 00:06 ▲달질 09:43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씨						
최저/최고	12/27	14/27	13/28	15/26	16/24	14/26

# 초등교과서 부모 성역할 불평등 삽화 수정 어머니 제사·식사 동참 모습 추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불평등 의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초등학교 교과서 속의 삽화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정된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2학기 ‘바른생활’과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 부모의 성에 따른 역할이 불평등하게 그려져 고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삽화는 2학년 생활의 길잡이 72쪽의 제사지내는 장면과 1학년 ‘바른생활’ 87쪽의 확대가족의 식사·조식 묘소의 차례·가족 율놀이 모습 등이다.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없

러 차례를 지내는 삽화에 어머니도 함께 절하는 모습이 추가된다.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4남매가 큰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사이에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밥공기를 아들에게 건네는 삽화에는 어머니도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장면으로 수정된다. 남자들이 노는 율놀이판 그림은 할머니와 어머니도 놀이에 참가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조식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절하는 사이에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어머니가 다스듯하게 서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의 삽화는 어머니와 딸도 함께 절하는 모습으로 수정된다.

연협뉴스

# “횡령 아니라 밀린 월급 지급한 것”

### 장기기증재단 반박 회견

‘장기기증재단’(이사장 지남철·이하 기증재단)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재단 간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고, 횡령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증재단은 7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의 장기 기증운동 광주본부’(이하 운동본부)의 전 총무국장 이모(41)씨가 지난해 10월 기증재단을 설립하면서 운동본부의 공금 1억1천8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운동본부 해산 과정에 이사들의 동의를 얻고,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8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재단 측은 또 남은 3천여만원도 “기증재단 설립을 위해 은행의 정식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기증재단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장기 수혜자들에게 90만~2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경찰 조사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증재단은 또 “운동본부 측이 감사비와 분부 후원금 등 500여만원을 낸 수혜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장기이식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독단적이고 비도덕적인 운영으로 탈선을 빚어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6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정의 달 지하철엔 ‘화합 선율’ 7일 광주지하철 금남로 4가역에서 ‘시니어 앙상블’ 연주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오는 12일에도 농성역에서 ‘제2회 중앙예술제’를 갖는다. /위정환기자 jrwi@kwangju.co.kr

# 中産 카네이션 원산지 미표시 4곳 적발

광주·전남의 도소매 꽃 판매업소 4곳이 중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 동안 이 지역 화훼공판장, 도소매 꽃시장 등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장미·안개꽃 등 수입화훼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광주 광산구 2곳, 북구 1곳, 전남 곡성 1곳 등 모두 4곳의

# 과도한 수갑·포승 사용 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피의자 신문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는 도주·폭행·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때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35)씨가 “수갑과 포승

# 병역특례비리 수사 확대 업체 1,800여곳 일제조사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병역특례업체 1천8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특례자의 편법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1곳에 소속된 특례자 300~400명의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 62곳 중 5개업체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조사를 받은 업체는 총 23곳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중 15개 이상 업체에서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 후서울경찰전문학원

복구청 맞은편 (062) 251-7959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제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위)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옆 단정빌딩 광주은행 4F

##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대표전화: 062)228-8000 예약문의: 062)228-4711~2

- 특전사항
- 예약 고객에 대한 특전사항
- ※ 하객 25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케빙 무료 제공
  - 3단 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제공
  - 특수효과 연출 무료
  - 웨딩 캔들,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페백실 및 페백의상 50% 할인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허니문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
- ※ 하객 40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케빙 무료 제공
  - 3단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 제공
  - 특수효과 연출 및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무료제공
  - 웨딩 캔들, 페백실 및 페백의상 무료 제공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허니문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